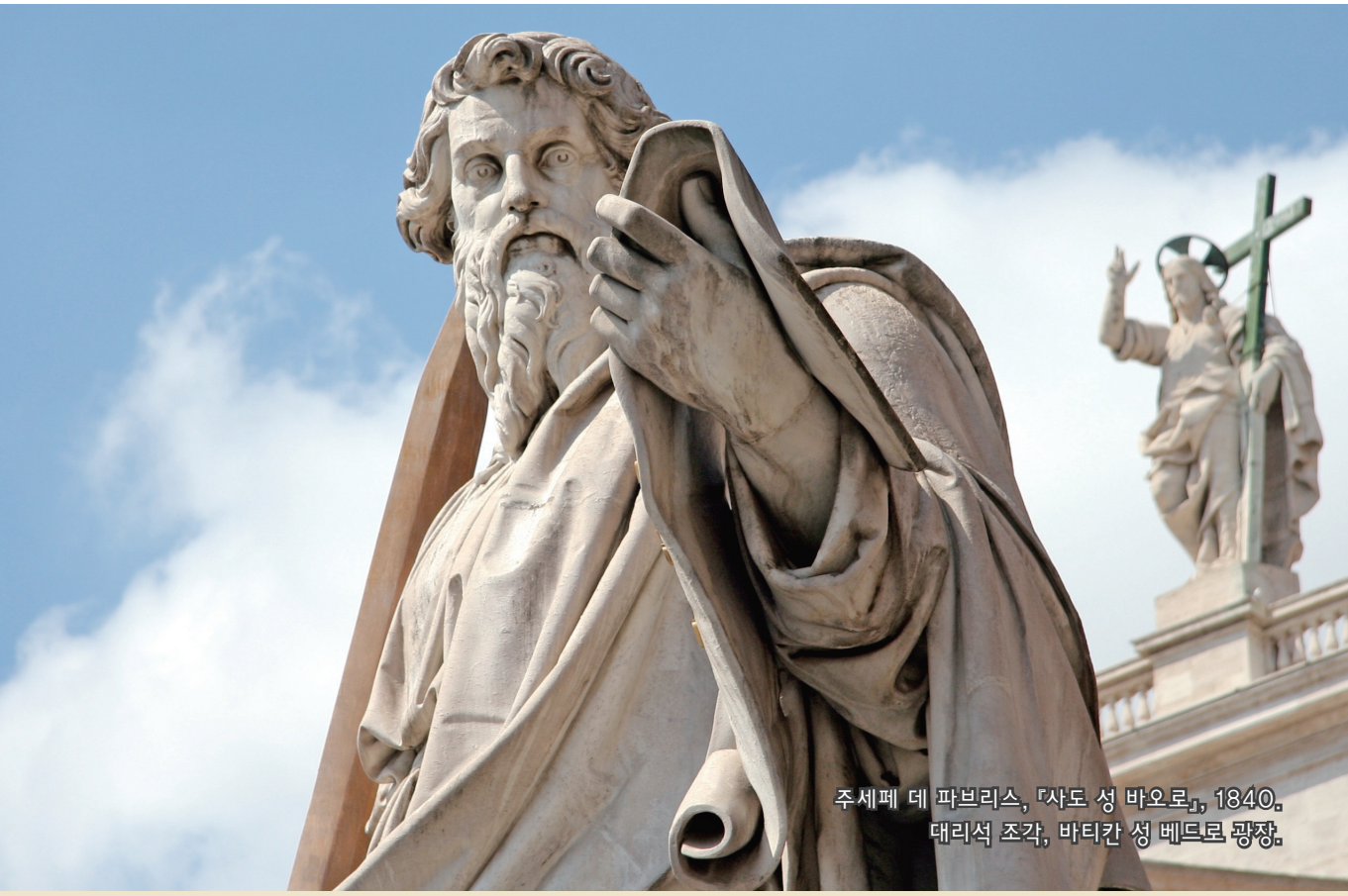
대구주보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2015.5.3.(나해) 제1942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주세페 데 파브리스, 『사도 성 바오로』, 1840.
대리석 조각,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 오늘의 전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 15,1-8 참조)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른 모든 활동의 기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쓰셔서 한 생명체가 될 정도로 꼭 붙어 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로 주님과 생명을 나누게 되었고,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과 한 몸이 됩니다.

제1독서 사도 9,26-31 **제2독서** 1요한 3,18-24 **복 음** 요한 15,1-8

입 당 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화 답 송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백명흠 바오로 신부 | 죽도본당 주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본당 교우들과 함께 부활 엠마우스로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회 역시 한국 교회처럼 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순교지를 방문하였는데 특별히 운젠 지고쿠(지옥온천)라는 곳에서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한 한 여인은 배교하지 않으면 자녀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형리의 협박과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았고, 유황 온천의 뜨거운 물에 온 몸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현세에서는 비록 죽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 갖은 고문과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용감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포도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르코복음 4장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당신 곁에 머무르는 삶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께로부터 파견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제2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는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모두를 마땅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이지 마라."하신 5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기념하는 '생명 주일'입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일 뉴스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내 생명이라 하여 내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옹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일치하였습니다. 포도가지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겠습니다.

제5회 생명 주일 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생명의 복음을 경축합니다!

「생명의 복음」 회칙 반포 20주년에 즈음하여

5월 첫째 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기념하는 '생명 주일'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회칙 「생명의 복음」을 반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교황께서 「생명의 복음」에서 우려한 대로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들이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며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을 혼동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잊을 만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는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공통점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에 비례하여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였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그 시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것이며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고의적인 낙태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먼저, 사목자들은 생명과 가정에 관한 사목이 교회의 중점 사목임을 인식하고, 생명과 가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신자 가정은 가정이 '생명의 성역'임을 인식하고, 불임수술을 포함한 인공피임과 낙태를 멀리하고 자연출산방법을 이용하십시오. 난임 부부는 시험관아기 대신 입양으로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신자 입법자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폐지에 앞장서고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신자 의료진과 생명과학자들은 무디어진 양심을 일깨워 생명의 통제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생명 자체인 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신자 언론인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일이 신자들의 의무임을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복음을 경축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3일 제5회 생명 주일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목단상

뭐 먹고 사노?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 교구 노인사목담당

볼리비아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하는 질문이 "그곳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주식(主食)이 뭐냐?"하는 것이다. 가끔씩 하는 농담이지만 그들도 뭘 먹을까 고민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는 종류가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한다. 그곳 음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형부터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중남미 지역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평균 해발 4천 미터의 안데스 산맥이다. 하지만 이 산맥이 위치해 있는 곳은 대륙의 서쪽이다. 이곳에서 주로 먹는 음식은 옥수수, 추뇨(감자를 얼려 말린 것), 차르케(말린 고기) 정도이다. 사실 음식 종류가 별로 없다. 반면 대서양에 접해 있는 동쪽은 평야 지대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끝이 안 보이는 목장이 있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비해서는 먹을거리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볶은 밥(안남미), 요리용 바나나 한 쪽, 닭이든 소든 고기 한 조각이다. 더 간단하게는 삼계탕 비슷한 닭국 정도이다. 내용물은 복불복 국자에 떠지는 부위와 조금 넣어 같이 끓인 쌀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음식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는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신부님과 저녁에 반 미사를 갔다. 성당까지 어두운 길을 걸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반 미사를 신부들이 나눠서 간다. 미사가 끝나고 초대한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보통 간식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저녁으로 닭국을 준비했던 것이다. 처음이라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후배 신부님이 그 닭국을 받고 물었다. "형님! 우째야 됩니까?" 당연하다 싶어 한 대답은 "다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데이."였다. 그 후배 신부님은 조용히 받은 닭국을 다 먹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우~욱' 거렸단다. 제대로 씻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그릇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 어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제야 "우째야 되냐"는 그 질문의 뜻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참고 먹은 그 후배 신부님이나 소박하지만 인정(人情)스러운 나눔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남긴 음식은 연옥에서 코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어릴 적부터 들었는데 어떤 음식도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그 소중함을 알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가르침대로라면 엄청난 양과 다양한 음식을 코로 먹는 보속을 해야 한다. 소중한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게 했으니 말이다. 먹어도 먹어도 다 못 먹어 버리는 게 더 많은 화려하고 넘쳐 나는 음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필요한 시대이기에, 닭국 한 그릇의 나눔이 새삼 따뜻한 기억이다.

잊지 못할 사형수, 최월갑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톨릭시보사 사장 신부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최월갑이란 사형수는 살인강도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받은 젊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해서 추기경님께서 미사도 드려주시고 수녀님께 부탁하여 교리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례를 받기 직전에 사형대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께서는 그에게 급하게 조건부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는 매우 평화로웠고 오히려 밝은 햇살을 맞으러 나갈 추기경님께서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천주교 묘지에 묻히게 해 달라는 유언과 함께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났고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간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추기경님 옆에 있던 소장에게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월갑이, 월갑이가..."

"왜 그래. 무슨 일인가?"

"월갑이가 저 밑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야. 죽은 사람이 웃고 있다니?"

추기경님과 소장이 현장에 가 보니 그는 정말로 밧줄을 목에 걸고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낡은 교수대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기경님은 두 번씩이나 교수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애처로워 어쩔 줄 몰라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제게는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라며 추기경님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평화신문

금주의 성인

5월 3일	성녀 마우라(순교자, 298년경), 성 알렉산드르 1세(교황, 순교자, 113년경) 성 야고보(사도, 주교, 순교자, 예루살렘, 62년), 성 에벤시오(신부, 순교자, 113년경) 성 테오둘로(신부, 순교자, 113년경), 성 필립보(사도, 순교자, 1세기경)
5월 4일	성 고데하르도(주교, 힐데스하임, 960~1038년), 성 베네리오(주교, 밀라노, 409년) 성 치리아코(주교, 순교자, 가자, 311년), 성녀 펠라지아(동정순교자, 타르수스, 300년경) 성 플로리아노(순교자, 로어흐, 304년)
5월 5일	성 마루론시오(수도원장, 두에, 634~701년), 성 사체르도스(주교, 사군토, 560년) 성 아베르티노(부제, 투르, 1189년경), 성 안젤로(신부, 순교자, 예루살렘, 1145~1220년) 성 에카(신부, 은수자, 크레이크, 767년), 성녀 유타(과부, 프로이센, 1250년) 성녀 크레센시아나(순교자, 5세기)
5월 6일	성 에보디오(베드로의 제자, 주교, 안티오키아, 67년경), 성녀 베네딕타(동정녀, 로마, 6세기)
5월 7일	성 도미시아노(주교, 위이, 560년경), 성 플라치도(수도원장, 오툉, 675년경) 성 플라비오(주교, 순교자, 니코메디아, 300년)
5월 8일	성 데시데라토(주교, 부르주, 550년경), 성 베네딕토 2세(교황, 685년) 성 보니파시오 4세(교황, 615년), 성 빅토르 마우로(군인, 순교자, 303년) 성 아가티오(백부장,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03년), 성녀 이다(과부, 니벨레스, 652년)
5월 9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오스티아, 1044년), 성 베아토(은수자, 베아텐베르크, 112년) 성 제론시오(주교, 체르비아, 501년), 성 파코미오(수도원장, 이집트, 290~346년)

▪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축복식을 거행하시고 이어서 진행된 개관식에 참석하셨다.

▪ 전국 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총회 미사

대주교님께서는 4월 24일(금) 오후 5시 꾸르실료 교육관 성당에서 전국 가톨릭경제인협의회 총회 미사를 봉헌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18주간, 2015. 5. 3.~9.＞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유딧 14–16장	에스 1–3장	4–6장	7–10장	1마카 1–2장	3–4장	5–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에스테르기 』

에스테르가 민족적 책임을 완수하여 유다인들을 구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비는 간절한 기도였다.(4,⑫–㉚) 곧,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께 대한 오염되지 않은 사랑과 믿음이 자신과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준다.

※ 가톨릭교회는 그리스어 칠십인역 성경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ㅇ 안의 숫자는 히브리어 성경에 내용이 보태어진 부분임을 표기하고 있다.

『 마카베오기 상권 』

도입(주변 정치 상황과 박해, 마타티아스의 다섯 아들의 반란, 1–2장)과 세 아들(유다, 요나탄, 시몬)의 무용담을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목숨을 걸고 성실할 때 주어지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4일(월) 19:30 교육관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5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5월 9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5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	–

대리구 소식

세계성모발현지를 찾아서 사진 전시회

일시: 5.16(토) 15:00부터
5.18(월) 대리구 성모의 밤까지
장소: 월성성당 내 문화관 대강당
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9(토) 14:00, 예수회 관구본부
주제: 수도생활과 예수회
문의: 예수회, (010)6245-1608
http://cafe.daum.net/vocsj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5.9(토) 14:00
장소: 부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본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천주섭리수녀회 섭리뜨樂(락) 성소 모임

일시: 5.10(일) 14:00
장소: 수원 왕림리 본원
문의: (010)3940-3635

성소식별을 위한 2박 3일 피정

기간: 5.22(금) 21:00~24(일) 16:00
장소: 세례자성요한수녀회(수원)
문의: (010)2432-4230 / 2만 원

군종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5.11(월) 10:00~16:00
장소: 교구청내 대강당
강사: 이상재(가스톨) 신부
만촌3동 주임
문의: 군종후원회, 256-0815

수도자와 함께 청년 성령강림 전례 피정

기간: 5.23(토)~24(일) 1박 2일
장소: 툿찡포교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제10차 여성 성령 피정

기간: 5.23(토)~25(월)(긴연휴)
장소: 루하피정센터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55)351-2286 / (010)3758-3572

교육 | 모집

렉시오 디비나 (앗숨)

일시: 매주(화) 19:3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대상: 남녀 젊은이 (앞산)
신청: (010)2649-204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2박 3일: 5.8(금) 17:30~10(일)
4박 5일: 5.18(월) 14:00~22(금)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1,2과정: 5.29(금) 15:00~31(일)
문의: (031)946-2337/8

2015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사회복지, 의료, 보건, 국제다문화 등)
접수기간: 5.4(월)~18(월)
문의: 850-3583(일반), 3505(교육)
660-5512~3(특수)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6(토) 14:00
장소: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 / 대·일반
세계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어연수 안내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캠프: 1차 7.18/2차 7.25(4주/40명)
대학생 연수: 1차 6.28 / 2차 8.29(8주)
부모동반연수: 7.18일 출발(4주)
특징: 영어연수, 체험활동, 해외봉사
문의: 656-6655(ARS 4번)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656-9911
010-2008-2329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since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의학박사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SINCE 1975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야간진료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5월 가나 강좌
일시: 5.10(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전국 젊은이 성령 축제
일시: 5.17(일) 9:00~17: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강당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 기도회

말씀과 현실치료를 통한 자기이해
과정: 5.11(월) 10:00~11:30 (8주간)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13

김종숙(요안나) 성물도예전
천부성당50주년재건축후원기금마련
기간: 5.1(금)~13(수)
장소: 교구청 안익사(한옥) 마당
주제: 성모성월과 어머니

부부를 위한 16차 MR주말, 331차 ME주말 ME 체험부부를 위한 16차 MR피정
기간: 5.9(토)~10(일), 한티피정의집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30차: 5.22(금)19:30~24(일), 한티
문의: 983-0521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일자: 5.9,30(토)/ 6.13(토) / 9.5,19(토)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학관 등
참조: www.dgpbc.co.kr. 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문의: 251-2610

교육 | 모집

5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5.16(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건강한 신앙생활
강사: 홍성남(마태오)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근로자회관 5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5.7(목),8(금) 월 3만 원
낮반: 로마서, 민수기(화,금 10:10)
저녁: 민수기, 로마서(화,목 19:10)
문의: (010)6506-3303, 관덕정 목 10:0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한국무용, 가야금,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POP,
초크아트소품, 톨페인팅, 바리스타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교대역)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한중친선협회에서는 중국어 신약성경
읽기반과 중국어 공부에 관심있는
교우를 연중 모집합니다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강의동 103호
문의: 진시형 요셉, (010)4931-0996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과정
기간: 5.26(화)~28(목) 9:00~16:30
장소: 가톨릭대학교병원 3층 데레사홀
신청: 5.18(월)까지, 3만 원(중식, 교재)
505-10-129903-9(대구) 완화의료팀
문의: 650-4557, 4438

2015년 후반기 임상사목교육 기본과정
기간: 8.11~12.2(매주 화 9:30~17:3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문의: 940-7799 / 7203
cpefatima9099@hanmail.net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따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5월 2일(토)	툿찡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김순복(베다) 수녀
5월 9일(토), 16일(토), 23(토)	툿찡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김춘진(아마타) 수녀
30일 (토)	예수성심시녀회 이춘조(세시리아) 수녀

※ 특집 프로그램은 수술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ANGEL EXPRESS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Yi Sang Doe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꼬)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가 함께 합니다.
더편한 내과
부설 :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고보) ☎ 053)651-7585